

감염병 등 재난의 상시화에 대응해 유연·탄력적 돌봄 운영체계 세워야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령기 아동 돌보는 부모 부담 가중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에 이어 2022년까지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정의 돌봄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학교와 지역사회 돌봄기관이 긴급돌봄을 실시했지만, 운영시간 단축, 인원 제한 등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위드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19 변종으로 교육과 돌봄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며 아동 돌봄의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앞으로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아동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 휴원없는 운영으로 지역사회 돌봄 이용률 늘어

2022년 6월 기준 서울시 605개 학교의 오후 돌봄교실은 1,889개로 확인됐다. 오후 돌봄 이용 학생 수는 2019년 대비 2020년 소폭 감소했다가 2021~2022년 점차 증가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서울형인 우리동네키움센터도 코로나19 사태 동안 중단 없이 운영되며 2019~2022년 현원이 꾸준히 늘어났다. 지역아동센터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돌봄공백 없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기관에 오지 못하는 경우 전화상담, 온라인 서비스 등 비대면 돌봄과 급식·꾸러미 배달 등으로 아동을 돌보았다. 지자체와 학교가 협업해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고, 학교가 돌봄공간을 제공하는 학교돌봄터는 2021년 시작해 돌봄 틈새를 지원하였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교 휴교 등에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기관은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에 따른 돌봄공백 최소화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앙정부는 대응 수준을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개학 연기, 학교 휴업을 결정하는 등 가정과 지역사회 전파 최소화에 주력하였다. 동시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긴급돌봄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기관의 긴급돌봄 운영, 근로자·기업 돌봄 휴가, 유연근무제 등으로 돌봄공백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후에는 등교, 원격수업 병행, 밀집도 제한에 따른 인원 제한, 부분 등교 등으로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돌봄을 위해 노력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전면등교가 실시되고 인원 제한 해제, 급·간식 허용, 프로그램 운영 제한이 완화되면서 학교와 돌봄이 정상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코로나19 변이의 확산으로 기존의 방역·돌봄 체계가 지속 운영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기 돌봄공백 감소 ... 10명 중 1명 “여전히 돌봄공백 경험”

2022년 5월 학령기 아동 자녀 학부모 1,18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위드 코로나 시기 학령기 아동돌봄의 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돌봄공백(코로나19 시기 등교하지 못한 경우, 등교수업을 하지 않는 평일 오전·낮시간 동안 자녀 혼자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만 시간을 보낸 경우)을 경험한 비율이 2021년 1학기 17.4%, 2022년 1학기 13.1%로 조사되었다. 돌봄공백 비율은 4.3%p 줄었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 이상이 돌봄공백을 겪고 있으며, 응답 학부모의 40.8%가 자녀돌봄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학년 자녀, 맞벌이 가정,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돌봄공백이 더 많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등교를 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상황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맞벌이 가정이나 소득이 낮은 가구는 갑작스러운 돌봄인력 부재 또는 기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 발생 시 대체 가능한 기관이나 인력을 구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일상회복 단계에 학부모 “돌봄기관 환경개선, 접근성 제고·비용지원 희망”

학부모가 밝힌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의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돌봄서비스 기관의 시설·공간 환경개선(21.0%)’으로 확인됐다. 그다음은 ‘일시·긴급 돌봄 상시운영(17.9%)’, ‘접근성 향상(14.6%)’, ‘오전·저녁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시간대 운영(14.3%)’ 순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1인당 면적 확보와 인원 제한이 요구되고, 급·간식 제공과 일시 격리를 위한 별도 공간이 필요해졌는데,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기관의 환경개선 요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돌봄서비스 기관의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돌봄서비스 기관도 아동 수용에 한계가 있어 일부는 자격요건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감염병 위기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유사 감염병 상황에 적합한 자격기준 정비가 요구된다. 그밖에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필요한 자녀 돌봄 지원 1순위는 ‘돌봄비용 지원(26.8%)’으로 확인됐다. 그다음은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23.0%)’,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13.0%)’, ‘재택근무 및 단축·유연근무제 활성화(12.9%)’, ‘가정 내 아동급식 배달(12.3%)’ 순이었는데, 주로 돌봄 바우처 또는 현금 지원 요구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해 돌봄 중심 협조체계, 예측가능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사태 기간 학교 휴교 등으로 수업이 중단된 동안에도 지역사회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은 중단없이 긴급돌봄을 제공하였다. 현장에서는 기존 돌봄 시간에서 오전, 저녁시간을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급·간식 제공, 등·하원 지도, 행정업무가 추가로 부과되었다. 이 기간 돌봄서비스 기관의 중요성과 개선점이 상당 부분 도출되었다. 지역사회에서의 돌봄기능이 확대되었으며, 더 많은 돌봄수요를 확인하였고 비대면 돌봄, 온라인 학습지원 등 유사 감염병 위기 상황에 필요한 개선점이 발견되었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기능의 강화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더욱 기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현장 실무자는 물론 학부모도 자녀의 돌봄을 위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재난 상시화에 대응하는 유연·탄력적인 학령기 아동 돌봄 운영체계 지향

2년여의 코로나19 기간에 단계적 일상회복과 코로나19 변종 발생 등으로 감염병 위기 인식이 변하고 있지만,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학령기 아동 돌봄 요구는 여전하다. 감염병 등의 재난에 상시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아동돌봄 운영이 필요하다. 위드 코로나 시기 학령기 아동 돌봄은 중단없는 돌봄(연속성), 격차 없는 돌봄(형평성), 빈틈없는 돌봄(연계성)의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먼저 중단없는 돌봄을 위해서는 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돌봄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돌봄 공간은 감염병 등 위기 상황 시 학생 1인당 면적 확보와 격리 등을 위해 최소 6.6m²의 단위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돌봄 공간 구성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적용하고, 격벽시설로 구분된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돌봄 인력은 재난 상황 시 발생하는 추가 업무와 돌봄 수요에 대응할 목적으로 현재보다 약 1.5배의 인력을 충원해 나가고, 대체인력 풀 운영으로 비상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침, 저녁돌봄 등 돌봄시간 연장으로 돌봄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더불어 학부모와 돌봄기관 관계자 의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급·간식과 관련해 찾아가는 도시락 배달서비스 등으로 혼자 있는 아동을 위한 중단없는 급·간식 제공이 필요하다.

누구나 격차없는 돌봄 위해 돌봄정원 계속 확대하고 돌봄비용 지원해야

격차 없는 돌봄을 위해서는 돌봄 정원을 조정하고 돌봄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돌봄의 수요는 증가하지만, 지금도 돌봄 정원에 제약이 있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거리두기 지침 강화로 정원 제약은 더 커진다. 돌봄기관의 정원을 지속 확대하고 재난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정원을 1.5배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추가 정원 확대 시 초등돌봄교실은 교내 1, 2학년 교실을 활용하여 공간부족을 해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재난 상황 시 추가로 돌봄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필요한 지원으로 돌봄 비용을 손꼽은 학부모가 많았다. 따라서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추진 경험이 있는 돌봄 비용지원은 관련 법률과 조례로 대응 방법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빈틈없는 돌봄 실현하려면 학교 등 유관기관 협력, 대응체계 점검 필요

빈틈없는 돌봄을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돌봄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감염 상황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돌봄협의회 조성으로 재난 상황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돌봄 이용을 연계하는 돌봄 연계통합시스템(포털시스템)은 긴급상황에서 돌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재편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유사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면 별도의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비상상황과 관련된 조문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

